지상백고좌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

“부처님오신날, 우리 모두 ‘極樂’으로 가자”

〈극락〉

12면에 이어

연등을 밝히는 건, 마음 밝히는 것
극락, 과거 · 현재 · 미래도 기쁜 세상
삼독심을 털어내고 밝음의 세상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는 법산 스님.



법산 스님이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있다.

“전 스승 복이 많아요. 덕산 스님에게 염불을 배웠고, 경봉 스님에게 참선을 배웠습니다. 경봉 스님께서는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달으면 ‘호쾌대활(好快大活)’의 삶, 호쾌하게 웃어크게 살아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호쾌대활의 경지가 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스님께서 참선의 가장 중요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문은 김동화 교수를 통해 알게 됐다. 유식과 법화사상을 전공한 김동화 교수는 팔만대장경이 머리에 다 들어있는 석학이었다. 책상에는 항상 〈선문염송〉을 두고 읽었고, 비구스님보다 더 열심히 정진했다. 법산 스님은 “학문하는 자세를 알려주신 분”이라고 술회했다.

한국불교 대강백 중 한 명인 탄허 스님께는 〈사서삼경〉과 노장, 장자를 배우며 유불선(儒佛仙) 삼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만 중국문화대학에 가서는 ‘선학의 황금시대’란 당대 베스트셀러를 쓴 오경웅(吳經熊) 교수를 만나 중국 선학을, 대만 푸런(輔仁)대학 총장인 로깡(羅光) 신부에게 중국 고대철학사상을 배웠다. 대만의 선지식인 인순 법사와 불광산사 성운 스님과의 교류는 세계 불교 전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법산 스님은 “이런 어른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국 간화선의 원류인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사상적 뿌리라 할 수 있는 중국 선과 화엄사상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보조국사 지눌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1986년 3월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법산 스님은 동국대에서 후학양성에만 진력하지 않았다. 포교와 전법을 놓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애인 포교.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다.

“1988년 수화를 배우며 광림사 연화복지원과 인연을 맺었는데, 지금도 매달 이분들을 만나 법문하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수화음악회도 열고, 시청각장애인 송년잔치도 하고, 점자로 경전도 만들었어요. 눈이 어둡고 귀가 멀었더라도 지금 생에 잠깐 그런 것이지 본래 성품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덜 보고 덜 듣는 만큼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 세상에서 환한 눈과 밝은 귀를 갖고 태어나자고 이야기해 줍니다.”

‘금강 행자’로 사는 즐거움

법산 스님은 수행에도 집중하고 있다. 선교율(禪敎律)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평생의 소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음기도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상당한 시간 동안 독송을 했고 그 다음에는 ‘보현행원품’을 읽었습니다. 경봉 스님, 성철 스님, 광덕 스님도 ‘보현행원품’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보현행원품’을 하면 신심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유학 중에는 6년간 매일 보현행원품 독송을 했습니다.

보현행원품 독송을 하면서 동시에 〈금강경〉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보조국사가 바로 〈금강경〉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조국사는 〈육조단경〉과 〈화엄경〉 ‘여래출현품’을 읽다가 좋은 체험을 했고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대혜종고 스님의 어록을 보고 구경각에 이르렀습니다. 그전에는 마치 돌이 풀을 덮고 있는 그런 느낌 같았는데 상무주에서 확철대오하게 됐습니다. 그 후 송광사에서 행화를 펼치면서 대중들에게 참선과 함께 〈금강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1986년 3월 1일 동국대 교수로 부임한 뒤 매일 한 차례씩 〈금강경〉을 독송했다. 그러다 2001년 11월 〈금강경〉 10만독을 발원했다.

“그때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불러서 갔더니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함께 촛불을 끄고 제자들과 부처님께 이번 생에 10만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금강경〉 독송 공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금강경〉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불교 수행의 지침서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주석서(注釋書)나 번역서가 나왔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오묘한 반야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번역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독송되고 연구되는 것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입니다. 금강(金剛)이란 보석 중에 가장 강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는 뜻이며, 반야는 밝고 맑은 근본 지혜를 뜻하며, 바라밀이란 언덕의 뜻이며, 경이란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므로 ‘가장 강하고 밝은 지혜의 언덕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면 신심이 다이아몬드처럼 돈독해지고 마음에 맑고 밝은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마음의 헛된 망상을 비우는 수행이 담겨있기 때문에 독송하면 전생의 죄업이 소멸하고 마음이 깨달음의 지혜로 밝아지게 되므로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여 어떤 상(相)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인욕행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계(戒)를 받아 지키고 복을 지어 신심을 일으키므로 모든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 전체에서 〈금강경〉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던 법산 스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독송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다.

“교수 재직 중에는 바쁘다 보니 1년에 500~600번밖에 못 읽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하루에 한 번씩 하면 10만 번 읽는 데 3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높였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생각만 가졌습니다. 못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하하. 연구년 때 지리산 벽송사 선원에 방부를 들여 정진을 하면서 독송을 했고 정년퇴직 이후 들어간 백장암 선원에서는 낮에는 참선을 하고 아침과 저녁 공양은 하지 않고 오직 〈금강경〉 독송만 했습니다. 백장암에서 있었던 6년 동안 2만독 이상을 한 것 같아요.”

통도사 시탑전에서도 독송은 계속되고 있다. 새벽 4시 일어나서 6시 아침 공양 전까지 3번의 독송을 한다. 공양 후 원로스님들과 차담을 하고 다시 독송을 한다. 11시 30분 점심공양 후에도 〈금강경〉 독송은 이어진다.

“요새는 하루에 10~15번 정도 독송을 합니다. 지난 1월 9일에 7만독 회향을 했습니다. 4월까지 1300독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육조 혜능 스님은 〈금강경〉을 인연으로 불교에 입문해 큰 스승이 됐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듣고 대전환이 일어나 오조 홍인을 찾아갔습니다. 저 역시 〈금강경〉 수행을 통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불교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시종일관 유쾌했던 법산 스님은 자신의 공부뿐만 아니라 후학들의 공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출가 수행자들은 첫째, 초심(初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출가할 때 초심 말입니다. 발심(發心)의 마음, 발보리심(發菩提心)의 마음이 바로 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심은 계율 정신으로 이어지는 ‘내 마음속의 지주’ 같은 것입니다. 계율 정신을 잃어버리면 게을러지게 되면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초심과 지계(持戒)의 마음을 먼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부처님 경전을 계속 섭렵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삼독심이 싹 떨어져 버리는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상태가 됩니다. 명심오도(明心悟道) 즉, 마음을 밝혀 깨달아서 다시 그 깨달음의 밝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입니다. 앞으로도 분별심 없는 자세로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재가불자들은 평소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보현행원품’을 보면서 신심을 다잡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인터뷰가 점심 공양 시간까지 이어졌다. 시탑전에서 공양간으로 찬찬히 자리를 옮겼다. 최근 다리가 불편해진 스님이 한걸음 한걸음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내를 장엄한 연등을 보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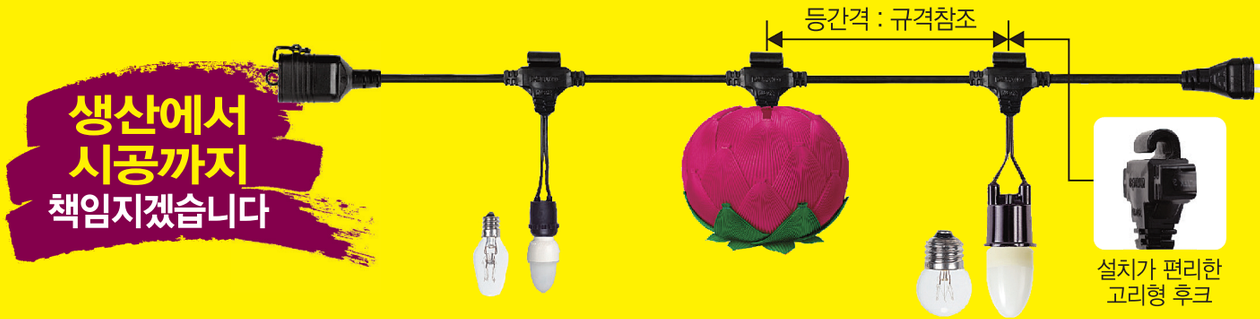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깨우쳐 정토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초파일에 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천년만년의 어둠도 이 등불 하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탐진치 삼독의 어둠은 등불과 함께 없어집니다. 삼독의 어둠을 털어내고 밝음의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극락세계로 가면 좋겠습니다. 다할 극(極) 즐거울 락(樂), 극락은 오직 기쁨만 있는 세계입니다. 과거도 기쁘고 지금도 기쁘고 미래도 기쁜 세상을 향해 같이 갑시다.”

스님의 간곡한 당부가 통했는지 영축산에 봄바람이 스친다. 연등이 춤을 추고 모두가 흥에 겨우니 매일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고 날마다 좋은 날이다.

유철주 /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